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공회를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11월 17일(주일) 제1270호



제주 Acts29훈련센터 전경.

제주 Acts29훈련센터 완공

지하 1층, 지상 2층, 대지면적 3,808㎡(1,152평)
선교자원 훈련 및 온누리 선교 비전 나누는 장

열방의 선교자원들을 훈련시키고, 온누리 교회의 선교 비전을 한국 교회와 나누는 선교의 장(場) '제주 Acts29훈련센터'가 드디어 완공됐다. 지난 13일(수) 제주 드림교회에서 제주 Acts29훈련센터 완공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재훈 담임목사, 정진호 장로(당회서기),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 제주 드림교회 이재정 목사와 성도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 Acts29훈련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다. 대지면적은 3,808㎡(1,152평)다. 지하 1층에는 기계 및 전기실, 식당, 지하

주차장, 소회의실, 지상 1층에는 커뮤니티 공간, 차세대예배실, 훈련강의실, 지상 2층에는 4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2인실 23개) 등이 있다. 옥상은 정원으로 사용되는데 훈련생들이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제주도는 외국인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테러위험국을 제외한 외국인들이 무비자로 최대 30일 동안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 Acts29훈련센터에서는 참가자들의 상황과 조건에 맞춘 최적의 훈련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든든한 동역자도 있다. 제주 드림교회가 제주 Acts29훈련센터를 함께 섬긴다. 제주 드림교회는 Acts29비전을 꿈꾸고 있는 온누리교회의 협력교회다.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한 이재정 목사가 섬기고 있다.

제주 Acts29훈련센터 완공감사예배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제주 Acts29훈련센터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온누리교회와 드림교회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권면했다. 정진호 장로(당회서기)는 “제주 Acts29훈련센터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른 뼈가 살아나고,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관련기사 7면>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공동의회

일시: 11월 24일 3부 예배 후
장소: 양재 사랑홀
대상: 18세 이상 세례교인

양해바랍니다

동빙고 근린공원 조성공사가 11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2020년 6월말(예정) 공사가 끝날 때까지 교회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님들께서 불편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11월 30일 '2019 임직예배'

권사 220명, 안수집사 365명 임직

11월 30일(토) 오후 4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임직예배를 드린다. 올해 임직 대상자는 585명(예정)이다. 권사 220명(명예권사 6명, 권사 214명), 안수집사 365명(남 117명, 여 248명)이다.

지난 8월 31일 개강한 '2019 임직자 스쿨'은 예배, 주제별 강의, 개인영성훈련(성경통독, 새벽기도, QT, 독서보고서, 봉사활동)등을 마치고 지난 16일(토) 종강했다. 임직자 스쿨에서는 교회론과 목회철학, 행복한 가정과 리더, 건강한 영성

건강한 리더, 세계를 품은 리더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다.

임직예배에 불참할 경우 임직이 되지 않는다. 복장은 남자는 검은 색 정장(흰색 셔츠), 여자는 검은색 바지 정장, 흰색 블라우스다. 임직예배에 올 때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교회와 이촌역(4번 출구) 구간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공동체 하반기 종강예배

서빙고			
날 짜	공동체	장소	시간
11월 22일	강서	두란노홀	18:00
11월 22일	서대문	한동홀	18:00
11월 22일	양천	비전홀	18:00
11월 22일	영등포구로	시온홀	18:00
11월 23일	관악금천	메가박스 이수점	14:00
11월 23일	이촌	서울극장	14:00
11월 26일	S브릿지	비전홀	18:00
11월 26일	강촌	시온홀	18:00
11월 26일	성북	두란노홀	18:00
11월 26일	여의도	한동홀	18:00
11월 28일	OCC	한동홀	18:00
11월 28일	동대문종량	두란노홀	18:00
11월 28일	신용산	비전홀	18:00
11월 29일	광명	하안장로교회	19:00
11월 29일	동작	한동홀	18:00
11월 29일	성동광진	비전홀	18:00
11월 29일	천양사역	두란노홀	18:00
11월 29일	한강	시온홀	18:00
12월 1일	고양은평	예수인교회	17:00
12월 1일	북누리	북누리비전센터	17:00
12월 1일	일산	M5(파주출판단지 메가박스 1층)	14:30
12월 1일	특별한 초대	순영홀	17:00
12월 3일	김포	한동홀	18:00
12월 5일	노원	상현교회	19:00
12월 5일	용산	한동홀	18:00
12월 5일	이수	두란노홀	18:00
12월 6일	가정사역	두란노홀	18:00
12월 6일	서빙고	시온홀	18:00
12월 9일	충정로	한동홀	18:00
12월 21일	마포	비전홀	15:00

양재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11월 19일	강남C	드림홀	19:00
11월 21일	강남B	드림홀	19:00
11월 23일	서초D	과천로고스센터 로고스 홀	11:00
11월 26일	서초C	드림홀	19:00
11월 29일	강남D	드림홀	19:00
11월 29일	도곡	온유홀	19:00
11월 29일	서초B	화평홀	19:00
12월 1일	푸른누리	화평홀	16:00
12월 1일	하모니	두란노홀	16:30
12월 3일	강남A	화평홀	19:00
12월 3일	강남E	온유홀	19:00
12월 3일	서초A	드림홀	19:00
12월 4일	분당B	드림홀	19:00
12월 4일	송파A	화평홀	19:00
12월 5일	CMN	드림홀	19:30
12월 5일	분당A	화평홀	19:00
12월 6일	POINT5	온유홀	20:00
12월 6일	경기A	기쁨홀	19:00
12월 6일	송파B	드림홀	19:00
12월 6일	양재	화평홀	19:00

캠퍼스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11월 22일	부천 사랑	본당	19:30
11월 29일	부천 믿음	비전홀	19:30
11월 29일	부천 화평	CGV 소풍	20:00
11월 30일	부천 소망	실로암교회	19:30
11월 30일	부천 회락	다락방별	-
11월 26일	수원 서누리	비전홀	20:00
11월 28일	수원 남누리	경천홀	20:00
11월 28일	수원 북누리	비전홀	20:00
11월 29일	수원 동누리	본당	20:00
12월 4일	대전 연합	본당	19:30
12월 6일	남양주 연합	수동충신교회 수양관	미정
12월 1일	평택 연합	본당	16:00
11월 29일	인천 연합	제너셀 8층 소망홀	19:30
11월 29일	강동 연합	본당	20:00
11월 29일	양지 연합	박모세홀	20:00

순예배 영상콘텐츠 시청안내

요한계시록 11:1~4 (11월 19일 본문)

본문주제: 증인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부활과 천국입성이라는 큰 영광을 누린다)

영상제목: 증명하는 삶 - 김형의 목사

내용: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현장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완전히 바꾸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능력있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적용질문: 증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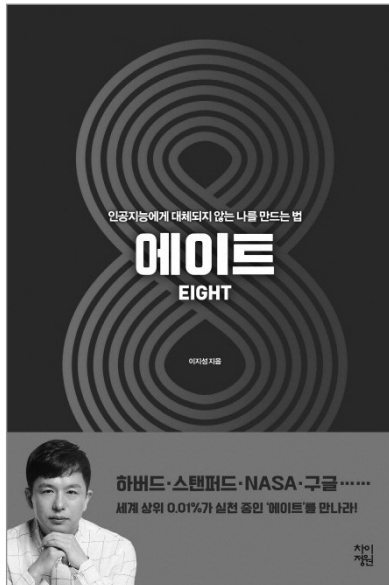
▶ 영상QR 코드:





책 읽어주는 목사

하나님 형상 닮은 창조적 인간



〈에이트〉

이지성 저 | 차이정원 | 17,000원

이 책은 지금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고 있다. 작은 부제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이다. 올해 우리나라 정부가 초청해서 온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국가 발전을 위한 키워드는 첫째 AI, 둘째 AI, 셋째 AI”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4차 산업혁명은 다보스포럼에서 슈바이 명명한 이

름이지만, 사실 독일에서 2011년 ‘인터스트리 4.0’이라는 용어로 먼저 상용화되었다. 더 일찍은 2006년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교수 재프리 힌턴이 딥러닝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는데,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추론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한 것이었다. 이 논문이 발표 되자 미국에 있는 지구의 지배계급에 속하는 실리콘밸리 상위 1%가 움직였다. 그들은 머지않아 새로운 인류 문명시대가 시작될 것임을 알아차렸다. 그 시대의 지배자가 되려면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구글과 NASA의 지원을 받아 2008년 ‘싱귤래리티(Singularity)대학교’라는 새로운 교육기관을 세웠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하면 2016년 나타난 알파고를 생각하지만, 이 책의 작가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양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변곡점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인 ‘기하급수적 변화와 성장’이 인공지능 기술을 기하급수적으로 발달시키고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싱귤래리티, 즉 특이점으로 번역되는 이 말은 ‘인류의 모든 지능을 합한 것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때’를 말한다. 그들은 이 특이점을 2045년으로 예측하고 있다. UN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50년경 100억 명을 돌파하고, 인공지능은 특이점 이후 100억 명을 지배하게 된다. 싱귤래리티대학교는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한 것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람들만이 특이점 이후 10억 명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이 인공지능시대의 지배자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싱귤래리티라는 이름 그대로 특이점 이후 시대를 위하여 교육하는 것은 사실이다.

“강의의 시대는 끝났다. 강의 위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인공지능의 종이 된다.”

미국의 물리학자 레이 케츠와일은 수확 가속의 법칙을 인공지능의 기술 발달에 대입시키면 2029년 인간의 지능을 추월한 인공지능이 나오고, 2045년에는 인류 전체의 지능을 초월한 인공지능이 나온다고 했다. 또한 그는 2025년부터 2035년 사이 전문직 10~30%, 2035년 30~50%, 2045년 80~90%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어 전문가들이 실업자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왓슨’이라는 로봇이 진료를 하고 있다.

나를 옥조이고 있는 이 압력은 무엇일까? 앞서 말한 것처럼 멘탈붕괴는 계속되나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에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유의 능력에 공감과 창조적 상상력을 주셨다.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환경이나 양육으로부터 다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가 관건이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인성과 영성교육을 생활화해야 한다. 이것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한다(잠 9:10).

AI가 잘하는 것은 지식과 기술이다. 게임을 해볼 만하다. 결국 하나님과 AI의 싸움이니 그 엔딩은 뻔하다. 이제 4년제 대학을 나오는 것은 무의미하고,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시대는 저물고, 뉴 칼라의 시대가 왔다. 책 〈에이트〉를 보면서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사색하기를 바란다. 무시무시하고 빠르게 급변하는 이 시대에 AI라는 말을 타고 그 말을 조종하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창조적 인간이 되어 보자!



김정순 목사
(부천 온누리교회 차세대)



Q4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교회에 나가면 정말 행복할 수 있나요?”

답: “참 평안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믿을 만한 보호자를 만나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복해질 수 없지만 빛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면 참 평안을 맛보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참 평안 되시며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다니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라고 권유하면 “교회에 나가면 정말 행복할 수 있나요?”라고 되묻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이 대답해 줄 수 있다.

“교회에 나오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삶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이 생겨 흐릿하고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1등만 하는 학생이 2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 1등을 빼앗겼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부러워하는 2등이라는 성적에 만족하지 못하고 매

우 속상해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꼴찌만 하던 학생이 어쩌다 60명 중에서 50등을 하게 되면 그 학생이나 부모님은 매우 만족해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마음이 실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의 평안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준다.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 명예가 있으면 행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과 권력과 명예에 최정상을 찍었던 사람들이 힘들고 괴롭다며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술과 오락, 섹스, 마약 등으로 자신의 허전함과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자기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죽음의 현장, 고통의 현장에서도 원수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설명해줄 수도 있다.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라는 생각은 불안과 두려움의 상태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은 믿을만한 보호자가 없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곳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곁에 없으면 자기 집에 있더라도 불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집에 아무리 재미난 오락기나 TV가 있어도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옵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완벽한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 처음 느낀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창 3:10). 이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믿을만한 보호자가 곁에 없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온 우주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인도해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복해질 수 없지만 빛 되신 예수님을 믿고, 빛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면 참 평안을 맛보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장경문 장로
(온누리전도학교,
〈날마다 111 전도〉
저자)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사도 바울의 고백 한 마디 한 마디를 묵상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각합니다. 너무나 쉬워 보이는 고백이지만 그 고백에 담긴 복음의 능력과 역사는 매우 깊고 오묘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역설적인 고백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세상에서는 약하면 약한 것이고 강하면 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진정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길

여러분은 스스로를 강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약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강자와 약자로 분류하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합당한 구분이 아닙니다. 스위스의 정신학자 ‘폴 트루니에’가 쓴 <강자와 약자>라는 책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강자와 약자라는 구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을 감추려고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과 약하게 반응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잘 감추어 성공한 사람은 강자처럼 보이고, 두려움을 감추는 것에 실패한 사람은 약자처럼 보일 뿐이다.”

올바른 지적입니다. 강자와 약자라는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사고방식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심리적 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강자가 되려고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적 사고방식입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보다 나은 것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적극적이고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 사고방식만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자기기도취에 빠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여기려 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않습니다.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여긴다고 세상의 강자처럼 보이

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힘, 다짐, 사고방식 등이 인간을 강자로 만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감출 뿐이고,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강자와 약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깨뜨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오직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두렵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진정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강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스스로의 결심과 다짐으로 강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강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외치며 강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책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네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수 1:8).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환경은 열악하고, 위기 상황이 끊임없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담대하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할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엡 6:10).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라”(딤후 2:1).

은혜로 굳세어진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독이를 생각합니다. 오독이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납니다. 넘어진 것 같지만 바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다주는 힘입니다. 그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올바른 강건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신비로운 이

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강자라고 여기고, 자신의 장점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약점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 볼 때 약점처럼 보이고, 부족함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통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성경 인물들에게 나타난 역사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까? 왜 그를 지도자로 부르셨습니까?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좋은 교육과 좋은 문물을 배웠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40세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배웠던 당시 최고의 교육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분노를 다스릴 수 없었고, 자신의 뜻대로 무엇인가 해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나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라는 한 가지 진리를 배우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장점과 강점은 무엇입니까? 치밀한 꾀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하는 꾀가 그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 안에서 깨어지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의 꾀였습니다. 때로 그 꾀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과 씨름했습니다. 태어나서도 형을 넘어뜨렸습니다. 아버지도 넘어뜨렸습니다. 외삼촌도 넘어뜨렸습니다. 야곱과 붙어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씨름왕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야곱의 꾀는 본능적으로 움켜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압박강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 에서가 야곱을 공격해 오면 도망갈 수 있는 마지막 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너졌을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인생이 어떻게 이긴 자입니까? 어떻게 승리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패

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의탁하는 연약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야곱 안에 있는 꾀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 이와 정반대로 삶에서 약점, 부족함, 연약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통로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봐도 믿음의 조상, 많은 자손을 번성케 하는 조상으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면 믿음이 좋아야 하는데 믿음이 없고, 조상이 되려면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던 이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에 합당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욥입니다. 욥은 창세기 인물입니다. 연대순으로 성경을 다시 배열하면 욥기는 창세기 중간 어디에 있어야 합니다. 욥은 노아의 홍수 이후 살아남은 노아의 자손 중에서 경건한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의인이었습니다. 자녀도 많이 낳은 가정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합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지 않고, 그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셔서 고난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약점, 부족함, 연약함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 보이지 않는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태 죄인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 있습니다.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친하다는 잘못된 영적 우월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주장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겼고,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많은 자손을 번성케 하는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을 때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13편에 계속〉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배우자일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 확인하는 방법 스스로 냉철하게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 사람이 내 운명의 상대인가?, 이 결혼 과연 최선일까?’

기자가 지금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한 질문이다. 깊어가는 가을, 그야말로 결혼시즌이다. 주말마다 수많은 결혼식장에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를 아끼고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결혼하는 커플들이 가득하다. 그들은 어떻게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인지 확인하고 결혼을 결심한 걸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기자에게도 핑크빛 만남이 찾아왔다. 그 형제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심각하게 고민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배우자가 맞는 걸까? 더 좋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끝없이 고민했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최선의 배우자임을 확인하고 결혼을 결심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반쪽인지 확인을 갖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A자매(45세, S브릿지)는 공동체에서 남편을 만나 올해 초 결혼했다. 그녀에게 남편을 배우자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사실 그녀는 현재 남편과 호감을 갖고 지내던 중에 좋은 조건의 남자와 선을 본 적이 있다.

“선을 본 사람이 외적 조건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직업은 교수였고, 그분의 부모님은 장로님, 권사님이셨어요. 서울에 40평대 아파트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미래가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과의 대화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도리어 지금 남편이 생각나더라고요. 내 마음이 더 끌리는 사람은 남편이더라고요.”

A자매가 그 좋은 조건의 남자를 뒤로 하고 지금의 남편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방식과 태도가 저와 일치하는지를 봤어요. 그분도 교회 잘 다니는 분이었어요. 다만 저와 성향이 달랐을 뿐이에요. 저는 주일에 하루 종일 교회 있는 게 당연한 사람이고, 매년 아웃리치를 기대하면서 적극 보는 사람인데 그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 배우자가 교회 섬기는 태도나 비전이 저와 맞고 신앙생활이 적극적인 사람이었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A자매는 배우자의 외적 조건에 휘둘려 결혼을 결정하거나 혹은 망설이는 크리스천들에게 간곡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보통 공동체에서 많은 자매님들이 ‘저 형제 괜찮다’면서 소개해주잖아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돼요. 정말 그 형제가 괜찮다면 자기가 잡아야지 왜 남에게 괜찮다고 소개하는 걸까요? 조건을 따져보니 자기는 안 괜찮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왕자님 빨리 와서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 인지를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해요. 자신의 성향, 성격, 신앙과 비전 등을 알면 배우자를 결정할 때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B자매(40세, NGO 근무)는 석 달 전 소개팅으로 만난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다. 그녀는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국제학을 공부한 재원이다. 1년에도 수십 번씩 소개팅 제의가 들어왔다.

“정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봤는데 결혼은 하나더라고요. 나와 신앙적인 비전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남자친구가 그래요. 신앙적으로 서로 지향하는 바가 너무 비슷해요.”

배우자 기도제목 리스트를 적어서 조목조목 기도하던 그녀였지만 이번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배우자 기도제목이 모두 맞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 저에게 배우자 기도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기도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배우자 기도제목이 25개가 넘었는데 지금은 12개로 줄어들었어요. 12개 기도제목 중에서 현재 남자친구는 그나마 3개만 맞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의 배우자 기도제목을 보시고 쓸데없는 것들을 조금씩 제거하시는 것 같아요.”

B자매는 올해 연말 미국에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확정짓고 오겠다고 행복해 했다. 그녀가 배우자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자기증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면서 상대방 조건에 대해서만 잣대를 삼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면 상대방이 내 반쪽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정의와 배우자 선택 기준은 같다

성경에도 배우자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 사례가 나온다. 아브라함은 뒤늦게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종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창 24:3~4).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신부감을 찾아 떠나는 종은 그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창 24:12).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험했다. 만약 여자가 물을 길러올 때 자신이 우물결에서 물을 달라고 부탁할 것이고, 이때 물을 길는 친절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인도해주시는 그 사람으로 믿겠다고 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기도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그 행동을 했다. 노종이 놀라 하나님을 찬송했다(창 24:27).

도대체 나의 반쪽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반쪽이 맞는 걸까? 확인할 수 없고 혼란스럽기만 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람이 네 사람이다”라며 꼭 집어 말씀해주시기 전까지는 계속 그럴 것이다. 이에 대해 기독교 작가 김재옥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남겼다.

“크리스천들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배우자일까?’라는 생각을 꽤 많이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꼭 집어 주시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다. 우리의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가 아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최대한 정결한 상태에서 배우자를 결정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배우자는 어딘가에서 지정된 사람이 나를 만나기 위해 달려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 만나 한 몸이 되는 순간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가 되는 것이다.”

윤천수 목사(사랑을 구하는 49일간의 이야기) 저자는 하나님은 택회사 직원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윤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 집 앞까지 배우자를 배달해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배우자 재판기’도 아니다”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구하고 행하며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경은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불의를 싫어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소망하고 견딜 수 있다(고전 13:4~7)고 정의하고 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방법도 이와 같다.

기자는 이 말씀에 백번 공감했고, 그래서 지금의 남자친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반쪽임을 확인했다. 왜냐하면 안 맞는 모든 조건들이 상쇄될 만큼 그는 온유하고, 친절하고, 무례하지 않았으며, 오래 참아줬고, 내 허물도 덮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보다 나은 남자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미련마저 과감히 떨쳐버렸다. 나 자신에 대해 제3자의 눈으로 냉철하게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나도 한 참이나 부족한 사람이었다.

올바른 배우자 선택하는 다섯 가지 기준



김숙경 소장
(김숙경 사랑연구소,
결혼예비학교 강사)

연애 중이거나 결혼을 고민할 때 상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질문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많다. 어떤 대상과 결혼해야 하는지 배우자 선택 기준을 세우지 못한 것이다. 특별한 기준이 없다보니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교회만 다니는 대상을 배우자로 선택하려는 청년들도 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만 보고 배우자로 선택하고 결혼했다가 결혼생활이 힘들어진 경우를 많이 보았다.

결혼의 조건 믿음?

A자매는 공부도 잘 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실력과 커리어우먼이었다. 결혼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믿음 있는 형제를 만나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다른 조건은 일절 보지 않고 교회에 잘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한 형제를 만나 연애하게 되었다. 결혼까지 해 보려고 노력해 보았는데 그 형제와 그 형제 가족들이 A자매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비상식적이어서 고민된다고 했다. A자매가 실력이 있고 직장도 좋다보니 모든 결혼준비 및 재정적 부담을 자매에게만 부담시켰다. 심지어 A자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신혼집과 부모님 살 집까지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믿음이 좋으면 결혼해도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서 내게 상담을 요청해왔다. 나는 A자매에게 배우자 선택에 있어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를 잘 다니고 봉사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줬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존중하시고 가치 있게 대한 것처럼, 내 반려자가 될 사람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A자매의 스펙을 통해 이득을 보려는 이기적인 모습은 결코 믿음이 좋다고 볼 수 없다고 조언했다.

청년들이 배우자 조건이나 배우자 기도제목에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막연하게 적어놓고 그런 사람과 결혼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분명히 말한다. 믿음은 삶으로 보여져야 한다. 인격을 통해 보여져야 한다. 교회를 다닌다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말은 직분만을 뽐내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신앙이 삶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신의 의견과 확신보다 부모님의 의견이 더 크게 작용해서 결혼이 어렵고 힘든 경우도 있다. 30대 중반 한 커플이 상담을 요청했다. 이 커플은 공동

체에서 만나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결정했다. 양쪽 부모님께도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형제 부모님이 심하게 반대를 해서 헤어질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며 문제를 호소했다. 대형 교회 직분자이신 형제의 부모님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의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도 그 정도 레벨의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다. 자매를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인격과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를 하셨다. 자매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자매의 가정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모님의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아들은 예전에 부모님의 반대로 여자친구와 헤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부모님이 반대해도 자신의 생각을 절대

건강하고 상식적인 배우자 선택

청년들 개인적으로,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기준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기에 선택하는 기준도 다를 것이다. 그래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조금 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건강한 선택을 하면 어떨까? 몇 가지 실제적인 내용들을 나누고 싶다

첫째,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건강한 소통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상대의 말을 경청해주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필요를 편안하게 말하는 것이다. 관계가 어려운 커플들을 보면 상황을 왜곡해서 보거나 상대의 말을 잘 듣지 않아 오해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비난이나 강요로 전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준다.

“나는 이러한 상황일 때 어떤 기분이 들어

라고 한 적이 있다. 남편이 안 나가면 내가 나갔다. 이런 방법은 갈등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잠시 타임아웃을 통해 감정을 가라앉히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리한 이후 솔직하게 대화를 하다 보니 갈등이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됐다. 이제는 갈등이 생겨도 조곤조곤 대화로 해결하게 되었다. 희한하게도 갈등을 잘 해결하면 부부관계가 더욱 친밀해진다.

셋째, 두 사람의 관계가 성장하고 존중하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다. 함께 할수록 두 사람의 관계가 성장하고, 상대방의 성장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좋다. 서로를 통해 대화도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하고, 신앙도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라는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졌는지 보라. 사랑은 존중이다. 또 상대의 필요를 내가 잘 채워주고 있는지, 상대는 나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지도 보라. 사랑과 관계는 자라야 한다.

넷째, 약점을 보아도 감당이 되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라. 예를 들어, 상대가 돈을 너무 책임감 없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어렵고 함께 할 미래가 잿빛으로 그려진다면 선택을 재고해봐야 한다. 상대방 가족의 간섭이 매우 심해서 감당이 안 된다거나 가치관 차이가 너무 나는데 좁혀지지 않고 강요당하거나 감당하기 벅찰 때는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결혼할 사람의 약점을 알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 결혼해도 된다.

다섯째, 함께 할 미래가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결혼생활은 장거리 경주와도 같다. 긴 여정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배우자와 살아갈 삶이 긍정적이어야 한다. 만약 미래가 부정적이고 기대도 되지 않는 결혼이라면 힘들다. 살면서 겪을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신뢰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도 필요하다. 연애 과정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결혼 후에도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소중히 대하게 된다. 배우자는 내가 선택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하며 관계를 살펴보자.

이 다섯 가지 조건에 모두 맞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정도만 상대에게서 볼 수 있다면 된다. 나머지 영역은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성장시켜 가면 된다. 이 외에 개인적으로 너무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생각하고 결정하라. 스스로 선택이 어렵다면 교회에서 건강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멘토나 연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다. 건강하고 상식적인 배우자 선택을 통해 건강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과 커플들이 되기를 바란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건강하게 독립시켜 주시리라 믿는다.

배우자 선택하는 다섯 가지 기준

-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고
- 갈등 회피 않고 대화로 해결하고
- 관계가 성장하고 존중하며 필요 채워주고
- 약점이 감당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 미래가 그려지고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세 가지 이상 충족되면 괜찮다

급하지 않고 그 자매와 결혼까지 하려고 정말 애를 썼다. 그 모습을 보며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 결혼에 말도 안 되는 배우자 조건을 대며 얼마나 자녀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크리스천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말과 다르게 믿음 외에 학력, 경제력, 실력, 외모까지 보는 분들이 있다. 모든 조건을 갖춰야지만 자녀의 배우자감으로 안심한다. 그런 조건을 갖춘 대상을 찾으려 하다 보니 대상이 없어서 자녀들의 결혼이 어려워진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결혼예비학교를 통해 성경적 결혼관과 서로의 차이에 대해 배우고 알아가듯이 부모님들도 자신의 자녀를 건강하게 떠나보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훈련 받을 필요가 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자녀의 결혼에 요구하는 조건들로 인해 어려워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았다. 어떤 청년은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해 아예 결혼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요. 나의 필요는 무엇이에요?”라고 말해보자. 예를 들어 “내가 노력했음에도 인정해주지 않고 비난할 때 무기력하고 서운한 기분이 들어요. 나의 필요는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라는 식으로 말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서운했겠네요. 앞으로는 수고한 것에 대해 잘했다고 말해줄게요”라고 공감하고 대답해준다면 상대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 것에 대해 고마워할 것이다. 건강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무던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 건강하게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는 상대와의 결혼생활이 좋다.

둘째,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연애 때는 갈등이 생겨도 헤어져서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떨어져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 보니 갈등을 회피해도 관계가 괜찮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같은 공간에서 갈등을 해결해야 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회피는 잠시잠깐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이후에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대화로 문제를 잘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결혼 초 갈등이 생기면 회피하는 남편이 답답해서 남편에게 나가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찬양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다. 성경은 분명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했다.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귀한 찬양팀이 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국악찬양팀 ‘한선’이다.

국악찬양팀 한선의 팀원 대부분은 크리스천이 아니다. 비신자도 있고, 천주교 신자도 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드리는 찬양은 선율부터 가사까지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그들 안에 작은 믿음의 씨앗이 꿈틀대고 있기 때문이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한선의 꿈은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 것’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알아가고 있는 국악찬양팀 ‘한선’



국악찬양팀 한선이 남양주 온누리교회 창립 15주년 감사예배에서 특순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사진을 찍던 손을 멈췄다. 가야금, 해금, 대금이 만들어내는 화음에 건반이 어우러진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악기들과 너무 잘 어울리지는 보컬의 목소리도 으뜸이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너무나 익숙한 신명기 말씀의 가사는 마음 속 깊은 곳까지 감동을 선물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국악찬양팀의 이름은 ‘한선’이다.

하나님의 진짜 콜링이 시작됐다

한선은 가야금, 대금, 해금 등 국악기를 통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다. 그런데 팀원 대부분이 크리스천이 아니다. 장경애 성도(남양주 온누리교회, 한선 보컬 및 타악기)와 장희영 성도(새로운교회, 한선 가야금)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 세 명은 신앙이 깊지 않거나 비신자다. 천주교 신자도 있다. 그런데 그들의 찬양에는 깊이가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대해주셨기 때문이다. 장경애 성도는 국악찬양팀 한선을 “한 영혼을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콜링 장소”라고 소개했다. 장경애 성도와 장희영 성도는 다른 팀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한선의 시작은 정말 우연한 만남이었다. 장경애 성도가 운동센터에서 20년 만에 고등학교 선배 김미정 자매(한선 리더 및 건반)를 만

났다.

“우연히 미정언니를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20년 만에 만나는 거라 이런 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 순간 ‘이 뜻밖의 만남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미정언니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장경애 성도는 그 만남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가운 만남을 뒤로 하고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김미정 자매에게 먼저 연락이 왔다.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며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뒤로 둘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순탄추진도집회에도 초대했다. 장경애 성도가 소속된 순의 순원들이 김미정 자매의 기도제목과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기도 했다. 교회의 따뜻함에 김미정 자매의 얼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사실 김미정 자매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친할머니가 YMCA 초대회장을 맡을 정도로 뿌리 깊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본인 수입의 절반을 헌금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 하지만 김미정 자매에게 하나님은 할머니의 하나님일 뿐이었다. 본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회만 되면 김미정 자매의 음악적인 재능을 사용하셨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CCM 공모전이 있었어요. 당시 갑작스레 아버지를 잃은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에 성경구절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성경 말씀이 그 친구를 위로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공모전에서 제가 만든 곡이 채택돼서 CCM으로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게 제가 만든 첫 번째 CCM이에요. 그날 이후 어떤 힘이 제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김미정 자매를 더 깊이 만나주시기 위해 장경애 성도를 붙여주셨다. 국악을 전공했던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악찬양팀을 만들었다. 두 사람과 함께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김미정 자매가 국악을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김미정 자매의 친구 한지수 자매(천주교 신자, 한선 해금)와 박세정 자매(비신자, 한선 대금)가 합류했다. 처음에는 그저 국악이 다시 하고 싶어 모인 사람들이었다. 장경애 성도도 친구를 초청했다. 가야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친한 친구 장희영 성도를 데려왔다. 그렇게 모인 다섯 명이 한선이라는 이름으로 국악찬양팀을 만들어 활동하게 됐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짜 콜링이 시작됐다. 하나님은 국악찬양팀 한선의 멤버 한 명 한 명을 천천히 만나주셨다.

팀원 전체가 함께 한 첫 공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국악찬양팀 한선은 여러 곳에서 초청을 받았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팀원 전체가 함께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공연 때마다 팀원들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너무 아쉬웠지만 할 수 없이 서너 명 정도만 무대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팀원 전체가 함께 공연할 기회가 생겼다. 바로 남양주 온누리교회 창립 15주년 감사예배였다.

장경애 성도가 국악찬양팀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임현태 장로(남양주 온누리교회)가 특순을 부탁했다. 장경애 성도는 국악찬양팀 한선의 팀원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도하며 소식을 알렸다. 김미정 자매에게는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보여주며 작사, 작곡을 부탁했다. 김미정 자매는 공연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했다.

“사실 경애 자매의 부탁을 받고 제가 공연을 해도 괜찮을지 고민했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

해 잘 모르고, 말씀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믿음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곡이 써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국악 찬양이 탄생했다. 곡도 준비가 되고 모든 것이 잘 해결 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겼다. 대금을 연주하는 박세정 자매가 종교 공연을 못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미정 자매가 박세정 자매를 찾아다니며 간절히 설득했다. 꼭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김미정 자매의 설득 끝에 박세정 자매도 함께하기로 했다.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공연 직전까지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다. 공연 당일 특순의 순서가 바뀌어 해금을 맡은 한지수 자매의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번에도 다함께 연주할 수 없을까봐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한지수 자매의 배려로 모두 함께 무대에 오를 수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오른 무대는 그야말로 성공적이었다. 국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선의 찬양에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도 있었다. 장경애 성도는 “팀원 전체가 함께 하는 첫 공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라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특순을 마치고 뜻밖의 간증도 들려왔다. 종교 공연이라 함께 할 수 없었던 박세정 자매가 열린 CCM 음반을 내자고 제안한 것이다. 박세정 자매는 공연을 하기 위해 참석했던 예배에서 어렵듯이 하나님을 만났다. 박세정 자매는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모인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집에 돌아가서는 공연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다. 찬양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찬양을 제작하고 싶어졌다.

장경애 성도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팀원들이 조금씩이나마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팀원들 모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 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악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선교훈련기관

‘제주 Acts29훈련센터’

외국인 목회자, 선교, 선교사 위한 교육 시설
숙소동, 대강의실, 소강의실, 식당 등으로 구성



제주 Acts29훈련센터는 외국인들을 위한 선교훈련기관이다.

온누리교회 두 번째 선교훈련기관 ‘제주 Acts29훈련센터’가 지난 11월 13일(수) 마침

내 개원했다. Acts29비전빌리지에 이어 두 번째로 선교훈련기관으로 개원한 제주 Acts29훈련센터는 ‘현지 사역자 교육’, ‘현지 교회의 선교적 육성’, ‘세계 선교 플랫폼의 촉매’라는 비전을 품고 있다. 이재정 목사(드림교회)가 담당하고, 제주드림교회 성도들이 섬긴다.

제주 Acts29훈련센터는 숙소동, 대강의실, 소강의실, 식당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대 수용인원은 46명이다. 소규모 집중교육 시설이다. 제주 Acts29훈련센터에서 실시되는 주요교육은 외국인 목회자 교육, 선교 교육, 선교사 훈련 등이다. ‘목회자 교육’은 온누리교회 예배, 양육, 공동체, 선교, 차세대, 대학 청년부 등 목양콘텐츠를 전수하는 훈련이다. QT, 일대일 제자양육, 예배와 찬양, 교회 학교 등 세분화된 온누리교회 양육 방법 등을 전수한다. 교육은 1~2주 정도 진행되고, 참가인원은 10~30명 내외이다.

‘선교 교육’은 말 그대로 선교사역자들에게 온누리교회 선교 및 타 선교단체의 선교 관련 프로그램을 전수하는 과정이다. 주요 양육프로그램은 PSP(Perspectives Study Program), Why Mission, 일대일 제자양육, 카이로스(외국인 선교 사역자 양육 프로그램) 등이다. 교육은 1~2주 정도 진행되고, 참가인원은 10~30명 내외이다.

‘선교사 훈련’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단기 4주, 단기 8주(4주 2회), 장기훈련 16주로 구분된다. 선교지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바일 스쿨형 교육방식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제주 Acts29훈련센터는 2021년까지를 정착 단계로 내다보고 있다. 그때까지 현지 맞춤형 교육, 사역 네트워크 형성, 내실 강화, 시설운영의 안정화 등을 목표로 달려갈 예정이다. 제주 Acts29훈련센터 정착단계 이후에는 Acts29비전빌리지는 한국인 선교사 훈련기관, 제주 Acts29훈련센터는 외국인 선교사 훈련기관으로 영역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이재정牧사는 “제주 Acts29훈련센터에서는 섬김과 동행에 가장 큰 가치를 둘 것”이라며 “제주 Acts29훈련센터를 찾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방을 얼마나 사랑하느지를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제주드림교회는 2013년 김수웅 장로와 제주도민들이 고 하용조 목사의 저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를 스터디 하면서 세운 교회다. 온누리교회와 협력하고 있다. 온누리교회와 동일하게 Acts29 비전을 품고 있다. 성도 500여 명이 출석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교회 선교리더십들이 제5회 온누리 선교컨설팅을 개최하고 ‘일반사역자 비전’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지난 11월 12일(화) 제주 컨싱턴 리조트에서 열린 제5회 온누리 선교컨설팅은 ‘사역을 모든 성도에게’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 김홍주 목사, 선교분과위원회, 당회운영위원회 장로 등 온누리교회 선교리더십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사역을 성도에게’, ‘온누리 일반사역 논의에 대한 평가’, ‘성도들의 선교적 기여’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5회 온누리 선교컨설팅 발표와 토론에는 넬슨제닝스 박사, 조문상 선교사, 한정국 선교사, 정민영 선교사 등이 참석했다.

일반사역자 비전은 1만 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겠다는 비전이다. 1994년 2천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비전과 함께 선포됐다. 현재까지 600여 명의 평신도 사역자가 파송되었고 30~40여 명의 일반사역자가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다.

제5회 온누리 선교컨설팅에서는 일반사역의 중요성과 평신도 사역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이재훈 담임목사가 “숫자보다 사역에 대한 정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사역자의 개념을 “팔복의 영성을 살아내고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역자”라고 정의했다.

김홍주 목사와 조대식 장로는 일반사역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평신도 사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홍주 목사는 “온누리교회 선교는 전도와 교회개척 중심에서 총체적인 선교로 발전하고 적응하면서 인적 자원의 한계, 재정적 한계라는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밝히면서 “인적자원 선발이 어려워진 시점에서 성도를 사역자화 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조대식 장로도 “성도들이 사역에 직접적으로 동참하는 일은 교회와 세상으로 이원화된 성도들의 정체성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성도가 새롭게 되면 온누리교회가 새롭게 되고, 온누리교회가 새롭게 되면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충희 장로(일반사역 담당)는 일반사역의 원칙을 소개했다. 일반사역자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역 사업계획과 예산작성 등 주도, 일반사역자 임명 이후 타 기관 파송, 정체성을 가진 존경받는 사역자 관리가 바로 그것이다.

조문상 선교사(BEE KOREA)는 온누리교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평신도 사역인 BEE KOREA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조 선교사는 “교회가 사역자를 만드는 것보다 먼저 훌륭한 성도가 되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교회 프로그램과 각종 사역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더욱 힘을 필요 있다고 제안했다.

일반사역에 대한 비판과 지지

일반사역에 대한 비판과 지지도 이어졌다. 넬슨 제닝스 박사(온누리교회 선교컨설팅트)는 “일반사역 비전의 본질은 지속하되 일반이라는 명칭과 숫자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민영 선교사는 “일반사역 보다는 선교에 대한 원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선교사는 “일반사역은 25년 전 우리가 생각했던 선교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목표”였 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교와 부합하는지 질문을 던져볼 때”라고 지적했다.

한정국 선교사는 “사역을 성도에게 돌리자

제5회 온누리 선교컨설팅

‘사역을 다시 성도들에게’

이재훈 담임목사, 김홍주 목사 등 120여 명 참석

일반사역 중요성과 평신도 사역의 필요성 논의



이재훈 담임목사가 선교컨설팅에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는 제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천/1만 비전은 예리한 평가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며 1만 명의 사역자를 파송한다는 비전이 성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5회 온누리 선교컨설팅을 마치고 이재훈 담임목사는 “온누리교회는 몇 사람이 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헌신하는 교회”라며

“교회는 올바른 방향을 성도들에게 제시해주고, 성도들이 올바른 초점을 맞추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5회 온누리 선교컨설팅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잘 수집해서 온누리선교를 개선하고 도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자”고 제안했다.

/ 김영선 기자

세상을 바꾸는 크리스천 문화 3. 장례사역

세상과 다른 크리스천의 장례문화

위로와 축복이 있고, 죽음이 새 생명으로

향내가 나고, 슬픔과 엄숙함, 어색함이 잔뜩 묻어있는 공간, 그리고 빠르게 차려지는 밥과 반찬들. 장례식장 분위기는 대체로 비슷하다. 상주를 포함한 고인의 가족들은 손님을 맞이하느라 슬픔을 느낄 틈도 없이 바쁘다. 빠르게 오가는 손님들은 자리에 앉아 고인과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한다. 떠나간 이에 대한 애도와 슬픔만이 가득하다. 그런데 크리스천의 장례문화는 세상의 장례문화와 조금 다르다. 고인에 대한 애도와 슬픔,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슬픔보다는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고, 죽음이 새 생명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크리스천들의 장례문화를 소개한다.

/ 홍하영 hha0@onnuri.org

크리스천의 장례문화와 세상의 장례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은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 말고 세상의 장례문화와 크리스천의 장례문화가 다른 점도 하나 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불러주지 않아도, 보상을 결코 바라지 않고 찾아가 섬기는 헌신이다. 장례사역팀이나 가깝게 지내던 교인들이 찾아와 정성껏 장례식을 섬기는 것을 보고 안 믿던 유가족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죽음이 새 생명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지난 5월 따뜻한 어느 봄날, 사랑하는 외할머니가 천국으로 떠나셨다. 처음 겪어보는 가족의 장례에 눈이 툭툭 부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잠겨있던 내게 따뜻한 위로를 건넨 이들이 아직도 생각난다. 그 위로와 사랑, 축복 덕분에 외할머니를 보낸 3일을 슬픔보다 따뜻함으로 기억하게 됐다.

외할머니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이 가득했다. 저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외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러 온 분들이었다. 그 많은 조문객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다. 자신의 일처럼 엄마(외할머니)를 잃은 엄마의 손을 붙잡고 함께 울어주는 분들이었다.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남겨진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분들도 있었다. 그 손과 마음들이 참 따뜻하고 감사했다.

권사님이셨던 외할머니의 장례식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이 났다. 갑작스런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예배에 외할머니가 다니시던 교회 성도님들이 참석해주셨다. “권사님 천국에서 봐요”하며 외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담담하게 웃어 보이시던 한 권사님의 인사가 기억에 남는다. 이 땅에서의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님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인하는 인사였다. 그 담담한 인사를 들으면서 나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사랑하는 외할머니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됐기 때문이다. 그 권사님이 울고 있는 내 손을 잡아주시면서 “울지마 아가, 할머니가 천국에서 보고 계신대. 아프지 말고 건강해라”라고 말씀해주셨다. 그 순간 몸이 아픈 나를 볼 때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해라”고 말씀하시던 외할머니가 떠올랐다. 그 권사님의 인사가 나에게도 할머니와의 마지막 인사 같아서 정말 감사했다.



황은아 성도 아버지의 '감사의 밥상'

크리스천의 장례문화에는 애도와 추모가 있다. 하지만 절망적인 슬픔은 없다. 이 땅에서의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잠시 슬픔에 잠겨 있다가도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위로를 얻는다. 때로는 죽음을 앞두고 지난날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원한 안식을 기뻐하며, 감사의 축제를 열기도 한다.

황은아 성도(강남D공동체)의 아버지는 올해 여름 천국으로 떠나셨다. 목사님이었던 황은아 성도의 아버지는 죽음을 앞두고 삶의 마지막 잔치 ‘감사의 밥상’을 열었다. 말기 췌장암을 앓고 있던 황은아 성도의 아버지는 천국으로 떠나기 5일 전 가족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던 지인들을 초대해서 마지막 식탁교제를 나눴다. 무대 한 쪽에 젊은 시절 연애사진과 가족사진 등을 걸고, 지나온 세월이 묻어있는 흔적들을 전시했다. 삶의 마지막 잔치였던 감사의 밥상은 그 이튿만큼 슬픔보다 감사가 넘쳐났다. 지나온 삶에 대한 감사와 영원한 안식에 대한 기대, 남겨질 가족들을 위한 위로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찬송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교제하며 식탁을 나누었다. 잔치가 끝날 무렵에는 다 함께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자리 모인 이들이 다 함께 찬양을 부르며

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황은아 성도의 아버지를 축복했다. 또 남겨질 가족들과 지인들의 삶을 축복했다. 황은아 성도 아버지는 두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로 화답했다. 그리고 얼굴에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미소가 만개했다. 그곳에 모인 가족들과 지인들의 얼굴에도 안도와 감사가 가득했다. 슬픔보다 감사와 기대가 가득한 잔치를 열 수 있었던 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황은아 성도는 아버지와 함께 나눈 마지막 식탁을 회상하면서 아버지가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따라 걸겠다고 다짐했다.

“천국을 사모하며 죽음과 몸의 고통까지도 겁내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정말 놀랐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떠나는 행복한 여행임을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세상에서 그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명이 모두 끝나면 주님 품에 안겨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목격하는 시간이었어요. 감사의 밥상은 아빠와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아빠와 진정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했어요. 먼 훗날 아빠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아빠가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따라 걷고 싶어요.”

영원한 안식의 기쁨을 전해야 한다

크리스천의 장례식은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

는 공간이기도 하다. 우선 고인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땅에서의 죽음이 천국에서의 영생이 되는 것이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예수를 믿지 않던 유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기도 한다. 장례식장에서 보여주는 성도들의 헌신적인 섬김을 보고 유가족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온누리교회에는 공동체별 장례사역팀이 있다. 공동체에서 장례가 발생하면 거기가 어디든 버선발로 뛰어나간다. 위로예배는 물론이고, 입관예배와 발인예배까지 모두 참석해서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을 위로한다. 장례식을 치를 일손이 부족하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를 하기도 한다. 내 가족의 일처럼 여기고, 모든 장례식 순서에 참석하는 장례사역팀을 보고 큰 감동을 받고 자신도 예수 믿겠다고 고백한 유가족들이 정말 많다.

김종민 목사(장례사역)는 크리스천들이 장례식장에서 가져야 할 마음과 보여야 할 태도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는 함께 우십시오. 가족 중 누군가의 죽음은 남은 가족들에게 가장 힘들고 큰 슬픔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동일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힘들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함께 장례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가족들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와 평안과 소망의 은혜를 주십니다.”

크리스천에게 죽음은 세상에서의 죽음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도 분명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의 여행길을 축복하고, 축복 받으며 떠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영원한 안식의 기쁨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며 그들에게도 이 기쁨의 비밀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유가족들과 함께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전할 수 있다. 소중한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남겨진 사람들과 함께 울고, 위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아닐까?

전문가 기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함께

낙태반대 3대 원칙!

낙태법 폐지 이후 교회의 역할



이명진 소장
(명이비인후과 원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지난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국회는 2020년 12월까지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 교회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생명을 죽이는 법안이 입법될 수도 있다. 교회와 성도들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입법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교계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7월 8일 국회에서 낙태죄 현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1,300여 명의 시민들이 정책토론회장을 가득 채웠다. 앞을 자리가 부족해서 계단과 단상 앞까지 자리를 매웠다. 그 이후에도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법안마련팀을 꾸려서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올해 안으로는 법안을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법안의 핵심은 낙태반대 3대 원칙이다.

낙태반대 3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 크리스천은 모든 낙태행위를 반대해야 한다. 수정되는 순간부터 그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제정해서 엄격히 처벌을 집행해야 한다. 유명무실한 법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성도 태아를 보호하는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들의 책임에 무관심했다. 선진국에서는 남성이 양육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거나 월급을 차압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취하고 있다. 이를 'Hit & Run 방지법'이라고 한다.

사회경제적인 이유의 낙태도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 발달된 의학과 사회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태아 기형을 발견했을 때 낙태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최신 의료기술을 통해 출산 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과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

둘째, 상업주의를 배격한다. 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는 낙태 한 건에 60~70만원을 받고 있다. 낙태 한 두건만 해도 큰 돈벌이가 된다. 그래서 낙태를 해서 안 되는 상황에서도 낙태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담 의사와 수술 의사를 분리시켜야 한다. 낙태 전문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운영해야 하고, 낙태수술 자격인증 의사에게만 수술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의료보험 적용을 통해 국가가 낙태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의료진은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 안 된다. 진료와 수술은 별개의 의료행위다. 수술에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마취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의료인이 참석한다. 이들은 양심과 종교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신학적 입장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는 1973년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 이후 지금까지 낙태를 허용해왔다. 최근에는 50개 주 중에서 11개 주에서 수백 개의 낙태반대 법안이 올라오고 있다. 주로 기독교의 영향력이 강한 주에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남침례교단의 신학적 기초가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결과로 판단된다. 신학교에서 선포되는 신학이 복음에 입각한 보수주의 입장을 취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따르는 자유주의 신학을 취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기준이 많이 달라진다.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자유주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복음주의

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지금도 남침례교의 입장은 미국의 크고 작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 말까지 남침례교 신학교와 교단총회에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신학자와 교계지도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었다. 그들은 낙태에 대하여 상당히 유화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들의 설교를 들은 정치인들과 법관들 역시 낙태허용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에 서게 되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자 남침례교 총회장이 바로 환영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면 당시 교단의 분위기를 잘 읽을 수 있다.

1979년 미국 남침례교단은 근본주의자로 불리는 아드리안 로저(Adrian Rogers) 목사가 총회장이 되면서 보수주의 신학그룹이 힘을 받게 된다. 이 시기부터 성경적 낙태반대 운동인 'Pro-life운동'이 남침례교단의 의견으로 다시 정착하기 시작한다. 남침례교단은 신학교와 교단 지도자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그룹을 내보내고 복음주의 그룹으로

지 않고 출산 및 입양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독일의 경우 아이가 16세가 되면 생모의 신원을 청구할 수 있다. 생모가 공개를 허가할 때 신원이 공개 된다.

둘째, 산모에게 심장박동을 의무적으로 들려주는 것이다. 'Save The Storks'라는 단체는 낙태 시술소 앞에서 산모들에게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은 산모 중에서 5명 중 4명은 출산을 선택한다고 한다.

셋째, 낙태를 포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하고 혜택을 제공한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산모들이 낙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산모들은 낙태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넷째, 기준을 벗어난 낙태를 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만·형사적 처벌을 해야 한다. 낙태가 시행되는 국가에서도 기준을 벗어난 낙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다섯째, 낙태를 결심한 산모들에게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라는 것과 낙태의 위험성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무엇보다 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가장 먼저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라고 선포해야 한다. 교회는 성경적 세계관과 기독교 윤리에 기초한 교육을 전 세대에게 전수해야 한다. 교계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 것도 좋다. 최근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여성사역 주중 마리아행진에 참석해서 낙태에 관한 강의를 하는 좋은 기회가 있었다. 많은 성도들과 낙태법 입법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나누고 기도했다. 미혼모를 돕고, 입양을 장려하는 활동을 많이 했으면 한다. 우리 모두 주님께 입양된 자녀들이다. 낙태를 포기하고 출산을 선택한 산모들이 미혼모가 되거나 자녀들을 입양 보낸다. 한국에서는 유독 미혼모와 입양을 선택한 산모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는 그 손가락질을 거두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 최전선에서 말씀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고 연구하는 단체를 위해서도 기도와 후원을 해야 한다. 지난 번 국회토론회도 온누리교회 모 집사님의 후원으로 할 수 있었다. 지금도 매일 그 집사님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있다. 오는 12월 7일에는 미국의 낙태법 현황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성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문의: 02-744-3402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5-102975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신학에 기초한 청교도적 개혁주의 교리가 탑재된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복음주의적 입장을 받아들일게 된다. 신학교와 교회에서 어떤 교리를 택하느냐에 따라 국가정책과 사회적 기준설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법과 사회제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치가들과 법관들 역시 목사들의 설교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1973년 미국에서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 역시 교회의 영향을 받은 판결이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의 논지를 상당부분 적용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좋다. 청교도적 신앙을 바탕으로 건국한 미국에서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인지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흥미롭다. 남침례교가 미국 기독교 교계의 주

대체해 간다. 현재 미국에서 많은 낙태반대 법안이 나오는 현상은 이러한 흐름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학적 입장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신학이 바로 서야 신앙인이 바로 선다.

한국에 적용하면 좋을 낙태관련 제도

외국의 사례나 법안 중에 한국에 적용하면 좋을 낙태관련 제도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비밀출산 제도다. 국내 입양특례법 실시 이후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모의 신상을 기록한다. 산모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서 태아 유기 및 낙태를 선택한다. 비밀출산 제도는 말 그대로 친모가 자신의 신상을 남기



수능종일기도회에서 학부모들이 수험생 자녀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기를”

수능종일기도회 ... 수험생 학부모 520명 참석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실시된 지난 14일(목)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학부모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수능종일기도회’가 열린 것. 차세대사역본부 주관한 이번 수능종일기도회는 수능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됐다.

1교시 오전 8시 40분부터 4교시 오후 4시까지 진행됐다. 520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해서 수험생 자녀들

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었다.

수능종일기도회에서는 1교시 이재훈 담임목사, 2교시 이상준 목사, 3교시 박종길 목사, 4교시 이기원 목사가 설교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부스러기 은혜’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자녀문제로 인해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요청하는 가난한 여인의 간절한 부스러기 믿음처럼, 우리 자녀들도 수능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도우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축복했다.

허수진 성도(서빙고공동체)는 “수능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는 기도를 했다”고 말했고, 최은정 집사(양천공동체)는 “이재훈 목사님 말씀처럼 이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기를 기도했다”고 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대전, 청년연합집회 ‘홀리임팩트’ 개최

11월 20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온누리교회

대전 온누리교회가 오는 11월 20일(수)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청년연합집회 ‘홀리임팩트’를 개최한다. 대전지역 대학생들과 청년들이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원유경 목사(SNS공동체)와 대청밴드팀 홀리임팩트가 찬양을 인도하고, 메시지는 김승수 목사(대청본부장)가 전한다.
문의: 042-825-3642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교회 재건

빨라우마를 베다니교회, 송쿠마를 은혜교회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8일(금)과 9일(토) 지진 피해로 완파된 인도네시아 빨라우마를 베다니교회와 송쿠마를 은혜교회를 재건하고 완공감사예배를 드렸다.

빨라우마를 베다니교회와 송쿠마를 은혜교회는 지난해 9월 발생한

진도 7.5의 강진과 쓰나미로 완전히 파괴됐다.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현지 교회와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두 교회 재건을 돕기 시작했고, NGO 더멋진세상도 힘을 보태면서 교회를 재건하게 됐다.

부천, 김장사역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11월 21~22일 배추 200포기

부천 온누리교회 한사랑 공동체에서 김장행사 봉사자 및 후원자를 찾고 있다. 김장행사는 오는 21~22일 실시한다. 배추 200포기를 김장할 예정이다. 김장김치는 부천 온누

리교회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부천 온누리교회는 김장사역을 8년째 이어오고 있다.

문의: 010-8743-3944

‘한일국제교류’ 행사 개최

채리티골프대회, 토크쇼 & 가스펠콘서트



채리티골프대회에 참가한 최경주 골퍼와 한일 참가자들.

오카야마에서 아주 뜻 깊은 한일우호 행사가 열렸다. 지난 5일(화) 오

카야마 코라쿠골프클럽에서 ‘한일국제교류’ 행사가 개최되었다.

CCF(Christian CEO Forum), 온누리교회 전도본부 주최로 열린 제3회 한일국제교류 행사는 1부 채리티골프대회, 2부 토크쇼 & 가스펠콘서트(맞춤전도집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 채리티골프대회에는 오카야마 ‘미래를 함께 하는 모임’, 리버사이드처치오카야마교회, 오카야마·히로시마 경제계, CCF 멤버 등 52명이 참가했다.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도 참가했다. 이날 골프대회 수익금은 전액 지난해 발생한 서일본 호우피해 지역에 후원했다.

맞춤전도집회로 개최된 2부 토크쇼 & 가스펠콘서트에서는 오카야마 교계 및 경제계 인사 110여 명이 참석했다.

아름다운 동행 코치반 수강생 모집

11월 23~30일 토요일 오전 9시 비전홀

아름다운 동행 코치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아름다운 동행 코치반은 부부코치 강사

를 준비하는 교육과정이다. 아름다운 동행 프로그램의 실제와 이해, 과정내용 습득 및 코칭 스킬 교육 등이 이어진다. 11월 22일까지 신청. 회비 10만 원. 문의: 02-3215-3268

‘뒷동산 과학소품’ 참가자 모집

양재 창조과학선교팀에서 ‘뒷동산 과학소품’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24일(주일) 오후 1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강의동 302호와 양재 뒷동산에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다. 참가신청은 온라인(<http://goo.gl/dtzAKP>)으로 하면 된다. 선착순 35명. 회비 5천 원. 문의: 010-8906-4940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8070	황성남	인천 동누리	1138121	오지선	이촌	1138145	정지영	여호수아	1138172	이지혜	인천Web
1138071	장기중	SNS	1138122	채용하	수원 북누리	1138146	최지훈	여호수아	1138173	이제운	인천Web
1138072	양이래	SNS	1138123	이수희	양지 동누리	1138147	박준영	여호수아	1138174	이유석	인천Web
1138073	강요섭	SNS	1138124	권희아	강동 믿음	1138148	최은혜	여호수아	1138175	이유미	부천 화평
1138074	홍세나	SNS	1138125	원혜정	서빙고	1138149	김다솜	여호수아	1138176	윤영희	도곡
1138075	이규연	SNS	1138126	손유진	서초C	1138150	안 빛	여호수아	1138177	홍준기	여호수아
1138076	남현아	SNS	1138127	정영화	수원 남누리	1138151	김유라	여호수아	1138178	이슬아	인천 서누리
1138077	차은선	SNS	1138128	서 훈	마포	1138152	김태영	W	1138180	김동원	서초C
1138078	김민홍	SNS	1138129	신현숙	마포	1138153	배인혁	W	1138181	이은정	부천 화평
1138079	최은지	강남D	1138130	권미경	부천 화평	1138154	차정훈	W	1138182	김진수	요셉
1138080	홍영미	인천 동누리	1138131	서지형	대전 동누리	1138155	임백호	여호수아	1138183	박예찬	요셉
1138081	임미선	SNS	1138132	주혜연	양천	1138156	김소화	여호수아	1138184	문상현	요셉
1138082	임옥순	수원 남누리	1138133	신명자	양지 서누리	1138157	김연지	여호수아	1138185	박성준	요셉
1138083	윤혜원	강동 믿음	1138134	김세자	대전 남누리	1138158	김효숙	여호수아	1138186	김철기	요셉
1138084	이진희	S브릿지	1138135	신현주	양지 서누리	1138159	이건기	수원 북누리	1138187	서사무엘	요셉
1138085	손정희	수원 남누리	1138136	하남경	부천 Dream	1138160	김용곤	하브	1138188	강수희	도곡
1138103	박주희	성동광진	1138137	박예림	부천 Dream	1138161	김태서	하브	1138189	박하경	요셉
1138104	이권경	수원 HIS	1138138	정 정	강남B	1138162	김예찬	하브	1138190	박세영	요셉
1138105	정영인	수원 SEED	1138139	한정자	강남B	1138163	김정희	하브	1138191	김은혜	요셉
1138106	이호선	서초C	1138140	이진형	평택	1138164	정유나	하브	1138192	김성민	서빙고
1138107	김승영	강남A	1138141	홍지혜	여호수아	1138167	한귀례	영등포구로	1138193	강서원	양천
1138108	박홍근	이촌	1138142	배진란	부천 화평	1138169	이현우	여호수아	1138194	김현지	서초C
1138119	신미경	남양주A	1138143	한준범	여호수아	1138170	주형욱	인천Web			
1138120	김은자	강남B	1138144	박연아	부천 화평	1138171	하은경	인천Web			

서빙고 새가족 만남의 잔치

일시: 11월 24일(주일) 오후 5시~7시 20분(식사제공) /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지하 2층 시온홀 / 대상: 9월 8일~11월 9일까지의 새가족 8주 과정 수료자

가정사역 양시창	조현경	동대문중앙 김민지	서빙고 김선미	영등포구로 김은정	이촌 김성현	한강 임진우
관악금천 윤 분	관악금천 이지민	관악금천 주옥순	관악금천 원혜정	관악금천 김진균	관악금천 김원호	
강서 문윤자	강서 이경희	강서 주옥순	강서 정지원	강서 김혜경	강서 심경아	S브릿지 고성태
이사랑 황재영	이사랑 이원희	이사랑 하인숙	이사랑 정영주	이사랑 손영순	이사랑 안지현	이사랑 김민수
강촌 김경숙	광명 노연정	광명 박현경	광명 박예찬	광명 이연정	광명 장승돈	광명 김민수
김관영 유사라	노원 박현경	노원 한원식	노원 박예찬	노원 이연정	노원 정예지	노원 김민수
고양은평 김문정	김포 비크림체트리	김포 이주희	김포 정영광	김포 조영은	김포 이종익	김포 김태윤
김영식 김형준	노원 박명희	노원 한원식	노원 정영광	노원 조영은	노원 이종익	노원 김태윤
						안현주 이민희
						최현정

■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 간증



/ 박지호 성도(한강공동체)

우리 집은 대대로 조상과 미신을 섬겼다. 한 달이 멀다하고 제사를 지낼 정도였다. 그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 있었다. 어릴 적 여동생이 사고로 죽고 엄마가 너무 괴로워하셨다. 주위에서 교회에 나가보라고 권유했고 그렇게 교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지금은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던 아버지까지도 온전히 주님 품안에서 안정감을 두고 살고 있다. 우리 가정에서 우상을 끌어낸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비록 사고로 동생은 죽었지만 그로 인해 우리 가족에게 구원의 복이 임했으니 말이다. 정말로 거저 받은 구원의 축복이다.

10년 전 셋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큰 풍파를 겪어야 했다. 남편이 외도하고 집을 나갔다. 집 나간 지 10년이 다 되도록 아이 셋을 홀로 키워야 했다. 내가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살피 주셨듯이 나에게도 이 우여곡절의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다. 고난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온전히 만나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사를 하게 되면서 집 근처에 있는 온누리

교회로 옮기게 되었다. 모든 것들이 낯설었다. 교회 규모가 크고, 사람도 너무 많고, 복잡했다. 특히 교회에 등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 참으로 의아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를 보고서는 ‘다 아는 내용인데...’라는 교만이 올라왔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동안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었던 말씀들이 퍼즐 맞춰지듯 정리가 되었다. 제대로 양육을 받고 나서 교인이 된다면 앞으로 이 교회에서의 생활이 기대가 될 정도였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 좋은 공부와 나눔이 끝났다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양육자님께서 정말 큰 위로가 되어주셨다. 양육자님은 내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셨다. 양육자님과 지체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온누리교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이제 내 믿음의 근육이 더욱 단단해져서 환경이나 상황이 갑자기 변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겨낼 것이다.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한다.

■ 창조신앙아카데미 수료 간증



/ 이기성 성도(강남C공동체)

창조신앙아카데미를 다시 수강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150~200여 년 동안 진화론에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창조신앙아카데미 여러 강사님들의 열정적인 강의를 들으면서 환원 불가능한 정보를 우리에게 설계하시고, 경이로운 창조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하심을 생각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섬세하고 과학적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경이로웠다.

세포 속의 시그니처 강의에서 정보의 오묘함을 배우면서 우리를 설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종류대로 다양하게 생명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연대 측정의 허구를 통해 과학이 반드시 진실이 아님을 들을 때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게 되었다.

진화론은 과학으로 위장하고 있으나 사실 생명의 기원을 알지 못하고 추측만 할 뿐이다. 창조신앙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진화론의 오류를 지적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창조를 진리로 믿고, 창조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은 언젠가는 진리로 드러나게 될 도구로 사용될 것을 믿는다.

나는 생명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변이나 유전과학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보았다. 대학원 시절 책과 강연을 통해 많은 영향을 주었던 창조과학 초기 연구자가 격변설에 이견을 보이며 떠났다는 것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정말 아팠다. 가장 친한 친구 중에 천문학도가 있는데 우주는 가스로부터 진화되었다는 것을 철썩 같이 믿고 있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진리를 분별하고 있는 창조과학 크리스천들은 위대한 크리스천의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들을 공감하고, 우리들의 죄 문제를 직접 해결해주시기 위함이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화론은 구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다. 그 허구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드러날 것이다. 부족한 우리를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감사하며 진리를 위해 나아가 순종해야 할 줄 믿는다.

■ 남양주 창립 15주년 감사예배 간증



/ 이승우 집사(남양주 온누리교회)

지난 11월 3일 남양주 온누리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아 온 성도가 함께 지점토로 장미꽃송이 천 여 개를 빚어 감사의 꽃길을 만들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아 예배 때마다 담임목사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비전으로 선포하셨다. 다윗의 장막은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본질적인 형태의 말씀이다. 그 의미가 나에게도 모호함으로 남아 있었다. 건물의 세워짐을 넘어 내 안에 지어지는 주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대감만 있었을 뿐 어렵듯 하기는 했다. 그러다 교회 창립 15주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조형물을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감사의 장미꽃 길에 그렇게 만들어졌다. 순과 공동체, 차세대, 사역팀, 다문화가족 등이 지점토로 장미꽃을 한 송이 한 송이 만들어왔다. 그렇게 만들어진 장미꽃들이 모여져 천 송이를 훌쩍 넘겼다. 주먹만한 꽃송이부터 고사리 손같이 작은 꽃송이까지 크기와 형태가 모두 다른 다양한 장미꽃들이 모였다. 다양한 장미꽃들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각기 다른

■ 감사의 장미꽃 길

모습으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을 보는 것 같았다. 그렇게 꽃송이를 가지고 교회 창립 15주년의 의미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미술제작팀이 함께 기도하며 고민했다. ‘이 장미꽃 한 송이 한 송이를 모아 30년 여정의 길을 만들고 그 가운데 15주년 감사의 조형물을 주님께 드리자!’는 결론이 나왔다. 미술제작팀은 주님께 순결하고 성실하고 새롭게 드러지는 조형물을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스케치하고 기도하며 제작하였다. 제작 과정은 쉽지 않았다. 여러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각자의 달란트 덕분에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창립 15주년 기념주일 아침, 감사의 장미꽃 길을 본 성도님들이 흠족해 하시고 우리 팀은 보람을 느꼈다.

나의 일상이 주님께 드러지는 상상을 해 본다. 나의 작은 회복이 열방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주님이 소망하신 나의 다윗의 장막이 아닌가 싶다. 바쁜 와중에도 맡은 일을 담당해 주신 팀원들, 늘 기도로 힘 주셨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다시 한 번 올려드리다.

■ 창조신앙스쿨 수료 간증



/ 이호영 성도(송파A공동체)

진화론과 창조론은 별로 고민하지 않는 주제였다. 학교에서 학문으로 배우는 진화론은 시험과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영역이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은 교회에서 배우는 영역이었다. 그동안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흥미 있는 주제도 아니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인간과 자연이라는 복잡한 존재가 수없이 많은 우연이 겹쳐져 만들어졌다는 내용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이 의문은 자연히 성경에서 읽은 창조론으로 이어지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이 있었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창조신앙스쿨에 등록하게 됐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그동안 인류가 생각했던 생명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많은 지역에서 생명이 발견되고 있다. 우리가 독성물질이라고 생각하는 물질을 양분으로 살아가는 생명도 있고 생명의 필수조건인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생명도 있다. 심지어 암석 속에서 적은 양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도

■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있다. 이 모든 생명들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도 존재할 수 있다. 조건이 어떻게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그렇게 적응한 생물이 진화를 거듭해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 인류가 탐색 가능한 외계에서도 적응한 생물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구주위에 있는 많은 행성과 위성에는 지적생명체는 물론 단순한 생명도 없다. 오직 여러 독특한 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구에만 생명이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생명의 탄생과 분화가 지구에서만 이뤄지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외에도 생명의 창조, 분화에 따른 다양성, 노아의 홍수와 방주의 과학적 입증, 지층과 화석에 대한 이해 등 그동안 어렵듯이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한 확신과, 설명이 안 되던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 세상과 현상에 대한 나의 관점과 패러다임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유익했다. 또한 아이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토대를 쌓는 기회가 돼서 감사하다.

장로칼럼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이화영 장로
(분당A공동체)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한마음정신회복예배를 섬길 때 일이다. 창립 4주년 기념예배 설교자로 양재 한마음 정신회복예배를 시작하신 김형회 은퇴목사님을 모셨는데 설교 말씀 중에 그리스도의 삶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의 이야기가 있어 나누고자 글을 쓴다.

하루는 목사님이 사시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한다. 아랫집 안방 천장에서 물이 새어 자꾸 떨어진다는 연락이었다. 내려갔더니 피해를 입은 아랫집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며칠 전부터 물이 샐습니다. 혹시 그동안 원인을 발견하고 수리를 하셨으면 우리가 조용히 도배를 하려고 했는데 범위가 차츰 넓어지면서 거실까지 확산되어 부득이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받고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마음 고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그분은 물이 떨어지는 안방 천장을 바라보며 며칠을 고민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뒷집에 사는 목사님 집으로 바로 뛰어 올라가지도, 인터폰으로 연락을 하지도 않고 정중히 관리실을 통해 연락을 하셨다. 그리고는 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 것을 걱정하시면서 수리비의 절반을 부담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한다. 그 말에 목사님께서 “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 있어 면책금만 지불하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자 그분은 “그러시더라도 필요 없는 지출을 하셔야 하니 면책금이 생기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모든 수리가 끝나고 아랫집 부부가 목사님께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연락을 했다고 한다. 목사님과 아랫집에 사는 분은 특별한 교제가 없었고,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목례정도만 나누는 사이였다. 현관문에 ‘선한목자교회’라는 교패가

있어서 교인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뜻밖에 사건을 경험하며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셨다.

우리는 말씀이 끝난 후에도 한참동안 말을 잃었다. 잔잔한 감동이 내면을 강하게 치고 지나간 것 같았다. 예수를 믿으면 다 이렇게 바보가 되는 것인지 정말 놀라웠다. 목사님이 해주시는 예화를 들으면서 ‘당장 뛰어 올라갔어야지! 현관문 벨을 세게 더 세게 누르고 당장 내려와 보라고 했어야지!’, ‘조용히 도배하고 마치려했다고?’, ‘반부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반부담이야?’, ‘식사초대는 무슨 얼어 죽을 식사초대? 모처럼 갑질의 기회인데?’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던 나를 반성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리해져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바보스러워지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고 하면 십리를 가는 것인가 보다. 왜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다른지, 우리가 덧셈을 할 때면 하나님은 왜 뺄셈을 하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비록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는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카 루에게 땅의 선택권을 내어준 바보 같은 아브라함에게 그날 하나님이 조용히 찾아가셔서 위로를 해주셨나보다.

꽃망을 터뜨리는 작은 소리에도 봄은 귀를 기울이듯 그 이야기를 들으니 작은 예수가 살고 있는 그 동네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선한목자교회를 섬기는 그 작은 예수 이웃에게 유기성 목사님의 영성이 그대로 흘러들어간 것 같다. 아름다운 행동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한다. 또한 우리 온누리교회 안에도 이러한 선한 이야기들이 많이 생겨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작은 예수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한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예수들이 거하는 온누리교회 되기를 축복한다.

권사칼럼

주님 제가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이정원 권사
(경기A공동체)

내가 미얀마 1기 어머니학교 진행자로 부름 받고 함께 갈 여섯 명의 스테프가 정해졌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미얀마 1기 어머니학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원하고 계셨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학교 본부의 지원과 여러 통로로 재정과 물품들이 부족함 없이 채워졌다.

지난 10월 5일 토요일 늦은 밤 미얀마에 도착했다. 한국에서 간 스테프(6명 상해에서 온 1명 포함)와 미얀마 한인 교회 스테프 3명(한국에서 어머니학교 수료)이 서로 소개하고 부어주실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중보기도로 하나 되었다. 스테프들은 각자의 포지션과 채워야 하는 자리에서 민감하고 민첩하게 움직였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그대로 흘러 첫 날 첫 찬양부터 눈물샘이 터져버렸다.

인구의 84%가 불교도인 나라, 온 거리가 승려들과 불교용품과 우상의 신전들로 넘쳐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어머니들은 현지의 열악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남편과의 갈등, 자녀 문제,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 그 어려움들을 가슴 속에만 묻고 살다가 어머니학교 강의를 듣고 나누면서 내어놓았다. 자신의 과거와 만나고, 묶여있던 매듭을 풀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치유 받고 회복되어 가정을 어떻게 세워 가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은혜의 자리였다.

서로의 삶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뜻깊었다. 어머니학교 셋째 날 오후까지도 자리에 잘 앉지 않고 무표정함으로 마음을 잘 열지 못하던 분이 간증문을 쓰고 발표하는 시간에 자신의 내면을 꺼내놓으셨다. 남편과

자녀의 외로움과 필요를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노라고, 이제는 힘을 주고 따뜻한 위로를 주는 자가 되겠다고 고백하셨다.

어머니학교 첫날 첫 시간부터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시던 선교사님께서서는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강제로 내몰려 나온 이후 미얀마에 오게 되었다고 한다. “왜 하필 미얀마입니까?”라고 하나님께 수없이 질문하면서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미얀마 1기 어머니학교에 참석하면서 통제력을 잃은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났다고 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줘서 너무 고맙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안아주고,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노라 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내가 먼저 성경적 여성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돕는 배필로서 남편과 하나 되고, 자녀에게 건강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셨다.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내 가정 내 자녀뿐만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셨다.

어머니학교가 끝나고 해단식에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넘치는 은혜를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또 미얀마 1기 어머니학교 수료자들이 단체채팅방을 만들어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눈다고 한다. 나그네 같은 심정으로 예배만 드리던 젊은 자매들에게 성령님의 뜨거운 불길이 지펴지고, 가정이 회복되며,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어머니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불교와 샤머니즘과 우상숭배로 물들어 있는 나라 미얀마에서 속히 현지인 어머니학교가 열려 복음이 전해지고,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미얀마 1기 어머니학교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주님! 제가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신앙에세이



최종현 전도사
(여호수아공동체)

최근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다. ‘나는 이것을 전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양한 상징적 표현들과 마지막 날에 대한 수많은 단어들,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한 존재들에 대한 설명들을 내 짧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의 지혜로 해석한 것을 지식적으로 채울 수는 있었지만, 그것은 온전한 이해가 아니었다. 부분적일 뿐이었다. 눈을 감은 채 코끼리의 다리를 잡고 있는 것이었

다.(코끼리의 다리를 코끼리의 전부로 착각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생각해보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요한계시록 뿐만이 아니었다. 세상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어떻게 아침에 눈을 뜨는지, 어떻게 아침밥을 소화시키는지, 지구는 왜 자전하고 있는 것인지, 태양은 왜 뜨거운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각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뇌에 있는 뉴런과 시냅스의 화학, 전기 작용이라면 그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며 왜 작동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또 다시 찾아오는 분명한 깨달음은 나는 아주 작은 점이라는 사실이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작은 존재 그것이 나의 존재이겠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갈망과 하나님의 뜻을 더

이해에 선행하는 믿음

이해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 아이러니하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고픈 마음,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은 고사하고 마실 수 있는 입조차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니 나에게 허락된 이해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모든 것은 달랐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길을 알 수 있었다. 예수님으로 인한 깨달음과 이해는 믿음이었다. 나는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었다. 믿기 때문에 이해를 갈망하는 것이었다.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을까. 믿음은 이해에 앞서 존재했다.

믿음 그것 또한 내 것이 아니었다. 전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온 선물이었다. 나에게서는 정말 아무 자격도 없었지만 허락됐다. 나를 주어로 시작하는 믿음은 없었다. 완전한 성령의 선물 그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인해 이해를 갈망했고, 믿음으로 인해 이해를 얻었다. 믿음과 이해 또는 신앙과 이성만 대립하는 개념 같지만 사실은 양립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은혜였다.

분명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이 넘쳐날 것이다. 아마 눈을 감는 그날까지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음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적합한 이해를 허락하실 줄로 믿는다. 믿음은 이해에 선행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내가 약할 그대에 강합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베들레헴을 떠나 잘 사는 모압으로 이민을 가서 꿈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깨졌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그곳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압에서 얻은 두 자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 자부는 돌아가고, 루이라는 자부와 함께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나오미의 상처였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자부 루이 만난 보아스라는 남편을 통해 그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고,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오미의 꿈은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미래에 더 큰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과 연약함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연약한 점이 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오미라는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점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낮추시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인생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역사하십니다.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하는 것들을 엷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고전 1:27~29).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강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

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7절).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고쳐보려고 하나님 앞에 세 번씩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사도 바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절의 이유를 알려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자신의 약함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가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계시이기 때문에 그 계시로 인하여 자신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막아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진리도 사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의 신비, 십자가와 부활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의 도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 정리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지극히 커서 교만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사도 바울의 교만을 미리 막아주셨습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죄의 결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당연히 당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둘째, 죄를 미리 막아주시는 고난입니다. 예방하는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미리 막아주시려고 그를 약함 가운데

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복음의 사도로 쓰시기 위하여 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그를 계속 겸손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예방하는 고난을 깨닫고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했습니다.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뿐만이 아닙니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강자가 되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고 그 자리에 죄인의 모습, 약함의 모습으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천사들을 불러 높은 자들을 진멸하실 수 있었지만, 강함을 사용하지 않고 약함 속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제물이 되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은 그가 약함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난과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십시오. 고난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자랑입니다. 세상에 강자와 약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고백을 평생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한국의 선교역사 들여다보기



채현석 선교사
(2000선교본부
선교역사연구실)

수많은 선교학자와 역사가들이 한국 선교와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요인을 이렇게 설명한다.

첫째, 오랜 고난의 역사 속에서 마음이 낮아지고 메시아를 갈망하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전 세기에 전해진 천주교의 혹독한 박해 받음과 희생이 백성들에게 복음에 관심 갖게 한 요인이 되었다.

셋째,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가 일찍부터 한글성경 번역과 보급, 부흥사경회 등을 통해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강조해 온 힘이 크다.

넷째, 이 땅을 밟았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희생 덕분이다.

다섯째, 네비우스 선교사 등이 제안한 선교지 분할 정책과 자전(自專), 자립(自立), 자치(自治)정신을 한국 교회가 받아들여 실천한 점

이다.

여섯째, 새벽기도, 통성기도, 기도원 등 열정적이고 간절한 기도운동이다.

일곱째, 일제의 강압통치와 수탈, 광복 이후 한국전쟁으로 인한 물질적 폐허와 정신적 공황에 시달리던 한국인들에게 교회가 기복신앙과 신비주의 운동을 통해 희망과 위로를 제공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네 번째 요인이었던 외국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고 싶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하기 전까지 한국에는 약 1,500명 정도의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왔다. 1980년대까지 약 3,000명의 선교사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에서 미국인 선교사들이 70% 정도를 차지했고 영국, 캐나다, 호주 출신 선교사들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당시 외국인 선교사들은 지역마다 낯선 땅에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 믿음으로 왔다. 보통 배편으로 열흘에서 한 달 이상 걸리는 먼 나먼 여정이었다. 통신시설이 미비하던 시절 편지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뿐 안부조차 전하기 어려운 땅에 죽음을 각오하고 온 것이다. 당시 한국

외국인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눈물

(조선)은 어떤 형편이었는가? 주거 환경이며 음식, 위생 상태가 참으로 열악했다. 백성들은 외국인 특히 서양인들에 대해 각종 편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치안도 불안했고, 야생 동물(호랑이 등)의 피해까지 있던 상황이었다. 어떤 선교사는 시골의 한 교인 집을 방문했는데 자신을 위해 차려온 밥상 앞에서 감사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 밥에 파리가 새까맣게 내려앉아 있더라. 입으로 훑 한번 불어 파리를 쫓고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맛있게 먹었다는 눈물겨운 이야기가 전해진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20~30대가 가장 많았다. 미혼인 경우도 있었고, 갓 결혼한 부부들도 많았다. 젊은 나이에 이 땅을 밟은 선교사들은 순교, 순직, 질병으로 본국에 귀국하지 않는 한 보통 20~40년 혹은 평생을 이 땅에 있어야 했다.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헌신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순교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잃은 선교사 가정들이 많았다. 지금도 서울 및 각 지방에 있는 선교사 묘역을 방문해보면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들 무덤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독신

으로 심긴 여선교사들도 많았고, 부부가 함께 왔지만 남편이 이 땅에서 순직한 이후 귀국하지 않고 홀로 선교사역을 이어간 여성들도 있었다. 선교사들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그치지 않았다. 학교와 병원 등 각종 구제기관을 세워 백성들을 가르치고, 질병을 치료하며, 가난과 환난당한 백성들을 도왔다. 한국의 근대 교육, 의료, 계몽운동, 심지어 일제에 맞선 항일민족운동까지 선교사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한국의 근대화에 선교사들이 크게 기여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내한 선교사 중에서 많은 이들이 이 땅에 묻혔다. 서울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인천 부평동에 위치한 인천가족공원 외국인 묘지, 충남 공주시 영명중고등학교에 있는 선교사 묘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호주 선교사 묘역, 대구 동산의료원 선교사 묘역, 광주 호남신학대 선교사 묘역, 전북 전주 예수병원 선교사 묘역, 충북 청주 일신여고 선교사 묘역 등 전국 곳곳에서 이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희생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영어예배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पाल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분당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루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봉사자예배 9:30/네팔어예배 10:30 제2센터/차세대 11: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펄렉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당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02호 문의: 이진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서빙고 권사회 버스 운전 알바 모집 분야: 전국환송예배 운전 자격: 온누리교인 조건: 대형 1종 면허 문의: 02-3215-3232 어린이창조과학탐사 일시: 11월 30일 오전 9시~오후 3시 (교회에서 버스로 이동) 장소: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원천교회 창조전시관 대상: 초등 2~6학년 30명 (회비 입금순) 문의: 010-6284-8479 (오후 2시~6시 상담 가능) 온누리남성성교합창단 단원모집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층 한동을 문의: 정상구 총무(010-4731-6514) 홈페이지 참조: onnmckr 동빙고 근린공원 조성공사 안내 기간: 11월 18일~20년 6월말(예정) 장소: 골포장 주차장 지역 -11월 18일: 지장물 철거 및 수목이식, 남유(EM전시관)내 칸막이공사(도서관 시설) -11월 19일: 도서관 이전 - 남유(EM전시관) -11월 19일~22일: 공사용 펜스 설치, 바닥 정리(복측) -11월 25일~12월 14일: 시설물 철거(골프장, 도서관) 양재 02.573.9686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운유희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 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 심방, 전도(사랑을 환우 요청함) 양재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하나 됨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문의: 송세호 팀장(010-8634-9030) *12월 9일까지 통일아카데미로 대체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오전 10:30 분당 B3층 JDS홀 인도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월 두 번째 월 오후 7시 30분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충성홀 문의: 010-2735-3807 몽골 의료병원 의학서적 기증 요청 지역: 몽골 초이발산 광역의료병원 의학도서관 모집: 출간 10년 내 영문의학서적(원서) 기증: 12월 10일까지 양재 목회지원실 문의: 김의석 팀장(010-3325-8058)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청예배)/6부 오후 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 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 9:00, 11:30 / 유치부~오전 9:00, 11:30, 14:00
유년부~오전 9:00, 11:30 / 초등1부~오전 9:00
초등2부~오전 11:30 / 유초등부~오후 2:00
중등부~오전 9:00, 11:30 / 고등부~오전 9:00,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기쁨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주일)
대학부 오후 2시(경찬홀) / 청년부 오후 3시(민음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3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시, 11:30 드림홀
유아부 오전 9시, 11:30 조이홀
유치부 오전 9:00, 11:30 소망홀
유년부 오전 9:00(초1~3), 11:30(초1~2) 사랑홀
초등부 오전 9:00(초4~6), 11:30(초3~4) 경찬홀
소년부 오전 11:30(초5~6) 믿음홀
중등부 오전 9시 비전홀 / 고등부 오전 9시 믿음홀
차세대 영어예배 오전 11:30 비전홀

대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젊은예배 오후 2시 30분 분당
대학부 오후 2시 30분 누리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교(36개월~7세) 오전 09:00
꿈방(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 3부(청년) 오후 2:00 분당 / 4부(저녁) 오후 7:00 분당 / 다문화 주일 11:00 4층 은유희
외국어예배
한디어 토요일 19:00 5층 믿음홀 / 네팔어 토요일 19:00 5층 소망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부흥예배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팡홀 /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택
0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수요일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여성예배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예꿈실
꿈이 자라는 땅 오전 9:00, 11:30 꿈팡실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실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헬터

인천
032.437.9686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11/3, 10, 17, 24: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종합관 3층 파워웨이브(중고등부) 예배/국제예배/사랑부 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대학청년부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11/3 대학청년부예배는 연세대학교에서 성인3부예배와 함께 드립니다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주일예배
성인예배 9시/11:25 오후 1:45
차세대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사랑부 11:20, 꿈팡1부 9:00, 파워웨이브부 9:00, 파워웨이브2부 11:20, 헤븐리키즈 오후 13: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2시, 몽골어예배 오후 2시

강동
0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분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사랑홀
사랑부 오전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분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분당

양지
0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2부 예배 / 11:3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3부 두드림예배 / 14:3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아) / 11:30 / 2층 드림씨드홀(분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3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3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30 / 2층 아펜젤러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30 / 2층 스코텐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3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CGNTV

나침반 바이블

BIBLE

다양한 목회자가 전하는 깊이 있는 성경 강의

열왕기하, 디모데전후서 말씀 강의를 통해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방송시간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전 8시



열왕기하

남북 왕조의 멸망과
하나님의 섭리

권혁승 명예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수요일 강의



목요일 강의

디모데전후서

교회의 리더

이철신 원로목사 (영락교회)



*다시보기: www.cgntv.net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0-1660 문의 02-796-2243